

WEBVTT

00:00:27.808 --> 00:00:28.985

-안녕하십니까? 철수입니다.

00:00:29.122 --> 00:00:30.601

-안녕하십니까? 존슨입니다.

00:00:30.701 --> 00:00:31.444

-철수와.

00:00:31.544 --> 00:00:32.471

-존슨의.

00:00:32.571 --> 00:00:34.373

(함께) 취업노트.

00:00:34.956 --> 00:00:38.155

-바늘구멍같이 좁은
취업을 문을 뚫는 거.

00:00:38.255 --> 00:00:38.952

-뭘니까?

00:00:39.071 --> 00:00:39.722

-스펙이죠.

00:00:39.827 --> 00:00:41.653

-그렇죠, 스펙.

00:00:41.776 --> 00:00:43.675

스펙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?

00:00:43.836 --> 00:00:45.795

딱 떠오르는 스펙,
떠오르는 게 있잖아.

00:00:45.964 --> 00:00:49.184

-저는 학점, 토익 성적,
자격증 이런 게 떠올라요.

00:00:49.356 --> 00:00:51.743

-그렇죠, 그리고 학벌
그런 것도 있겠죠.

00:00:51.907 --> 00:00:54.195

철수 씨는 스펙이 어떻게 됩니까?

00:00:55.058 --> 00:00:57.908

-첫 취업할 때 스펙을 한번
서로 이야기해 볼까요?

00:00:58.008 --> 00:00:58.808

-해 볼까요?

00:00:58.908 --> 00:01:01.659

-그렇습니다, 저 같은
경우에 학교가

00:01:01.801 --> 00:01:03.810

그 당시에 중경외시라고 그러죠.

00:01:03.955 --> 00:01:07.730

그 정도 급의 학교였고
학점은 3.52.

00:01:07.830 --> 00:01:10.253

그리고 토익 성적은 825.

00:01:10.389 --> 00:01:14.293

그리고 저는 창업 경험이
한 번 있었고

00:01:14.393 --> 00:01:16.846

그다음에 저는 경험이
책을 한 권 썼습니다.

00:01:17.013 --> 00:01:18.493

존슨 씨는 스펙이 어느 정도 되죠?

00:01:18.660 --> 00:01:23.428

-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
자랑할 만한 거는 학벌이 있었습니다.

00:01:23.567 --> 00:01:24.983

스카이 중의 하나였고요.

00:01:25.083 --> 00:01:31.062

그리고 학점은 4.5 만점에
3.29, 반올림해서 3.3.

00:01:31.162 --> 00:01:35.884

그래서 그때 3.29니까
못 쓴 대기업이 엄청 많았어요.

00:01:36.020 --> 00:01:36.797

-그러니까.

00:01:36.961 --> 00:01:39.364

-3.5 이상이어야지
지원되는 데가 엄청 많았잖아.

00:01:39.470 --> 00:01:40.085

-그렇죠.

00:01:40.185 --> 00:01:41.772

-그런데 요새는 그게 조금
없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

00:01:41.901 --> 00:01:42.953

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.

00:01:43.106 --> 00:01:44.952

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거야.

00:01:44.977 --> 00:01:47.765

-3.5 기준을 나눈다는 것도
너무 힘들지 않았나,

00:01:47.877 --> 00:01:48.647

이런 생각이 좀 들어.

00:01:48.747 --> 00:01:50.213
-3.5면 B+야.

00:01:50.349 --> 00:01:50.987
-그럼요.

00:01:51.087 --> 00:01:52.553
-B+ 받기 엄청
힘듭니다, 여러분.

00:01:52.668 --> 00:01:53.866
-B+ 받기 어렵습니까?

00:01:53.966 --> 00:01:56.602
-삼수강하면 제일 잘
받을 수 있는 게 B+이야.

00:01:57.275 --> 00:01:58.105
그렇죠?

00:01:58.837 --> 00:02:00.756
-난 몰라요, 삼수강
안 해 봤어요.

00:02:00.856 --> 00:02:03.933
학점 솔직히 3.5 받는 거
어려운 게 아닙니다.

00:02:05.611 --> 00:02:07.307
다른 스펙이 뭐가 있었죠?

00:02:07.407 --> 00:02:11.126
-제가 1학년 1학기 때
학점이 0.79였거든요.

00:02:11.246 --> 00:02:13.089
선동열 방어율이라고 그러죠.

00:02:13.189 --> 00:02:14.461
-많이 올라왔네요.

00:02:14.561 --> 00:02:22.672
-그래서 그 이외에는
토익 점수가 한 920.

00:02:22.772 --> 00:02:24.610
굉장히 낮았죠?

00:02:25.141 --> 00:02:27.644
-그리고 오픽 같은 거 있었죠?

00:02:27.744 --> 00:02:30.894
-오픽도 IH 그 정도 있었고.

00:02:30.994 --> 00:02:33.796
그리고 그 외에는 정말
이렇다 할 게 전혀.

00:02:33.933 --> 00:02:35.291
인턴 경험 조금 있었습니다.

00:02:35.439 --> 00:02:38.314

홍보대행사에서 인턴
경험 한 번 했었고

00:02:38.414 --> 00:02:39.861

그거 말고는 정말
아무것도 없었어요.

00:02:40.011 --> 00:02:40.789

-그 혼한 인턴.

00:02:40.889 --> 00:02:42.265

자격증 혹시 뭐 있었나요?

00:02:42.426 --> 00:02:44.394

-자격증은 태권도 3단.

00:02:44.494 --> 00:02:46.841

3단이면 자랑할 만하죠.

00:02:47.005 --> 00:02:48.478

1단도 아니고 3단입니다.

00:02:48.623 --> 00:02:50.792

-그런데 그거를 썼어요, 이력서에?

00:02:50.864 --> 00:02:51.424

-당연하지.

00:02:51.449 --> 00:02:52.266

-그걸 썼어요?

00:02:52.322 --> 00:02:52.622

-응.

00:02:52.647 --> 00:02:55.739

-아, 아무튼 저희의 스펙을
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.

00:02:55.890 --> 00:02:57.048

어려운 거 아닙니다.

00:02:57.148 --> 00:02:59.608

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
그렇게 높은 스펙이 아님에도

00:02:59.772 --> 00:03:01.747

저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
기업에 들어갔잖아요.

00:03:01.847 --> 00:03:06.697

-그렇죠, 당연히 스펙이
완벽할 수 없어요.

00:03:06.873 --> 00:03:08.619

그리고 완벽하다고
좋은 것도 아니야.

00:03:08.789 --> 00:03:12.829

학점이 됐든 그런 결격사유가

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

00:03:13.004 --> 00:03:14.987

그런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
극복할 수 있다는 거

00:03:15.091 --> 00:03:16.639

명심하면 좋겠습니다.

00:03:16.739 --> 00:03:19.154

-이렇게 저희 스펙만 너무
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

00:03:19.254 --> 00:03:21.894

아무튼 이번 시간에는
여러분을 위한 스펙에 관한 이야기

00:03:22.023 --> 00:03:23.207

한번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3:23.680 --> 00:03:27.931

-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
많이 갖는 것 같아요.

00:03:28.031 --> 00:03:29.209

나이도 스펙이다.

00:03:29.309 --> 00:03:34.571

최근 설문조사가 있었는데
졸업한 지 3년이 넘으면

00:03:34.671 --> 00:03:37.719

평점이 4점, 그러니까
학점이 4점을 넘어도

00:03:37.878 --> 00:03:40.473

이게 서류 통과율이
10%도 안 된다.

00:03:40.573 --> 00:03:41.610

-아, 그런 말이 있잖아.

00:03:41.732 --> 00:03:42.664

나이가 깡패다.

00:03:42.764 --> 00:03:43.256

-그렇죠.

00:03:43.407 --> 00:03:47.209

-졸업 직후에 20대 중후반
사람들이 취업이 잘 된다,

00:03:47.372 --> 00:03:48.080

이런 말이 있잖아.

00:03:48.207 --> 00:03:51.399

-그러니까 졸업 후 1년 이내인
지원자는 평점이 3.0

00:03:51.499 --> 00:03:53.816

이 정도 언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

00:03:53.982 --> 00:03:57.078
서류 통과 가능성이
38.5%에 달한다고 그러고.

00:03:57.207 --> 00:03:58.969
38.5%면 진짜
대단한 거 아닙니까?

00:03:59.098 --> 00:03:59.900
-그러네.

00:04:00.000 --> 00:04:02.739
-나이 같은 것도 여러분이
생각하기 나름이니까

00:04:02.839 --> 00:04:04.153
그거를 여러분이 경쟁력으로.

00:04:04.315 --> 00:04:07.548
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거든요.

00:04:07.639 --> 00:04:11.601
세 번째 회사 면접을 볼 때
제가 왔다 갔다 1년 내 퇴사를

00:04:11.751 --> 00:04:15.086
두 번 하고 세 번째 회사 면접을
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러는 거야.

00:04:15.186 --> 00:04:19.467
이 친구 퇴사를 많이 했는데
지금 우리 회사 들어오면

00:04:19.634 --> 00:04:20.519
오래 버틸 수 있겠어요?

00:04:20.682 --> 00:04:24.326
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
혼인관계증명서 들이밀면서

00:04:24.496 --> 00:04:25.676
저 이제 결혼했습니다.

00:04:25.804 --> 00:04:29.159
이제는 제가 더 이상
옮길 수 없습니다.

00:04:30.484 --> 00:04:32.283
그러니까 어?

00:04:32.383 --> 00:04:34.673
-거의 마법의 주문이네요.

00:04:34.773 --> 00:04:36.339
-그렇지, 그러면 이게 딱.

00:04:36.475 --> 00:04:39.268
-암행어사 마패처럼 그걸
딱 들이밀면 OK.

00:04:39.387 --> 00:04:42.304

-그래, 이런 거 진짜 충분히
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.

00:04:42.468 --> 00:04:43.559

-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.

00:04:43.717 --> 00:04:44.197

-응.

00:04:44.297 --> 00:04:48.663

-그렇습니다, 두 번째로 이게
가장 중요한 스펙이네요.

00:04:48.763 --> 00:04:50.070

학점과 영어 성적.

00:04:50.985 --> 00:04:53.876

이게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이 가장
스트레스받은 그런 스펙이잖아요.

00:04:54.022 --> 00:04:56.846

-가장 시간을 많이
투자하는 스펙이죠.

00:04:56.905 --> 00:04:59.092

-그런데 어떻게
생각하십니까, 철수 씨?

00:04:59.192 --> 00:05:01.811

-저는 사실 이제
학점과 영어 점수는

00:05:01.961 --> 00:05:03.706

어느 정도 자격화됐다고
생각을 해요.

00:05:03.847 --> 00:05:07.366

그러니까 잘해서 거기서
1, 2, 3등 상위만

00:05:07.491 --> 00:05:11.029

뽑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
넘으면 그냥 무가치하다, 무차별하다,

00:05:11.174 --> 00:05:11.943

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

00:05:12.085 --> 00:05:15.429

-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중요하지
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

00:05:15.529 --> 00:05:18.784

너무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
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

00:05:18.940 --> 00:05:24.550

그러니까 이게 4.3, 4.4
이런 건 정말 별로 의미가 없죠.

00:05:24.684 --> 00:05:25.329

-그렇지.

00:05:25.429 --> 00:05:29.874

-토익 점수 970, 985

이런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.

00:05:29.974 --> 00:05:33.871

저희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

말씀은 학점이랑 영어 점수가

00:05:33.971 --> 00:05:35.514

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.

00:05:35.665 --> 00:05:39.869

그런데 기본적인 스펙이지

이게 정말 인풋 대비 아웃풋이

00:05:39.969 --> 00:05:42.735

안 나오는 스펙 중의 하나잖아요.

00:05:42.852 --> 00:05:43.557

-맞아, 맞아.

00:05:43.657 --> 00:05:45.963

-그러니까 여기에 너무

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

00:05:46.063 --> 00:05:48.907

어느 정도 자기가

갖추어 왔다 싶으면 변별력,

00:05:49.038 --> 00:05:52.210

자기가 특별해 보일 수 있는

그런 스펙을 쌓는 데

00:05:52.310 --> 00:05:53.677

시간을 쏟기를 저희가 추천드립니다.

00:05:53.777 --> 00:05:54.751

-좀 환상을 버려야겠다.

00:05:54.776 --> 00:05:55.226

그렇죠?

00:05:55.309 --> 00:05:55.934

-그렇죠.

00:05:56.034 --> 00:05:58.431

-그다음에는 인턴이라는

스펙이 있네요.

00:05:58.531 --> 00:06:02.089

그런데 인턴은 존슨 씨도 그렇고

저도 그렇고 다 한 번씩 해 봤죠.

00:06:02.189 --> 00:06:06.106

-그렇죠, 제가 개인적으로

생각했을 때

00:06:06.206 --> 00:06:09.126

저희가 말하는 기본 스펙

있지 않습니까?

00:06:09.226 --> 00:06:12.447

학점, 영어 점수, 인턴 경험,
자격증 그중에서

00:06:12.547 --> 00:06:15.173

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
중요한 게 인턴이 아닌가 싶어요.

00:06:15.338 --> 00:06:15.769

-그렇지.

00:06:15.940 --> 00:06:22.474

-인턴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력서에
쓸 수 있는 스펙이 많지 않거든.

00:06:22.574 --> 00:06:27.810

토익 같은 거야 이렇게 딱 그냥
점수 기본적으로, 공통적으로

00:06:27.834 --> 00:06:29.903

쓰는 란이 있는 건데
인턴 같은 경우는

00:06:30.049 --> 00:06:31.244

자기가 추가적으로
쓸 수 있는 거잖아.

00:06:31.365 --> 00:06:32.631

그러면 이게 딱 보이는 거야.

00:06:32.760 --> 00:06:35.464

이게 자기가 어떤
회사에서 인턴을 했느냐.

00:06:35.564 --> 00:06:38.010

그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성향이나

00:06:38.195 --> 00:06:40.535

이 사람의 관심사 같은 게
딱 보이는 거니까.

00:06:40.701 --> 00:06:45.424

그리고 이거는 자소서 같은 데도
이게 영양가 있게

00:06:45.595 --> 00:06:47.874

풀어낼 수 있는 경험이
인턴 경험이지.

00:06:47.974 --> 00:06:52.339

-아니 그리고 저는 인턴이라는 게
여러분이 인턴을 지원할 때

00:06:52.439 --> 00:06:54.186

기업명만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

00:06:54.347 --> 00:06:57.073

어떤 직무. 어떤 일을 하는지
보고 지원하는 게 좋은 것 같아.

00:06:57.235 --> 00:06:57.717
-그렇죠.

00:06:57.817 --> 00:07:00.206
-사실 대기업이나
중견기업 같은 데도

00:07:00.306 --> 00:07:02.080
꼭 대기업에서 한 인턴만
쳐주는 게 아니라

00:07:02.189 --> 00:07:05.163
예를 들어 중견, 중소기업에서
어떤 인턴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도

00:07:05.263 --> 00:07:07.118
중요하게 요즘 판단을 하잖아.

00:07:07.218 --> 00:07:08.500
요즘 하도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

00:07:08.613 --> 00:07:11.333
직무 능력이다, 직무 능력이다
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.

00:07:11.506 --> 00:07:12.851
그러니까 너무 기업명만 보고

00:07:12.983 --> 00:07:15.018
자기 직무랑 상관없는
일을 하는 게 아니라.

00:07:15.178 --> 00:07:18.739
-맞아, 이게 진짜 중요한 게
인턴은 특히나

00:07:18.905 --> 00:07:23.796
무슨 기업 네임밸류 같은 거
정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

00:07:23.945 --> 00:07:28.099
저 같은 경우도 지금
저희 팀 인턴들 자소서들

00:07:28.247 --> 00:07:34.112
제가 많이 받아 보는데 거기
인턴 경험이 대부분 다 있더라고.

00:07:34.287 --> 00:07:38.162
-마치 필수 전형인 것처럼
5대 스펙, 7대 스펙 해서

00:07:38.262 --> 00:07:40.755
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
이제 기업에서도

00:07:40.929 --> 00:07:42.884
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기 때문에

00:07:42.984 --> 00:07:45.312

그런 형식적인 스펙을
보지는 않습니다.

00:07:45.412 --> 00:07:49.550
여러분께서도 직무 중심으로,
여러분이 하고 싶은 바를

00:07:49.650 --> 00:07:52.336
개척해오는 스펙이 있다면 정말
중요한 스펙이 될 수 있을 거라고

00:07:52.457 --> 00:07:53.307
저는 말하고 싶어요.

00:07:53.332 --> 00:07:54.791
-맞아요, 필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

00:07:54.907 --> 00:07:56.460
다른 말로 기본이라는 뜻이잖아요.

00:07:56.569 --> 00:07:57.019
-그렇죠.

00:07:57.119 --> 00:08:00.220
-기본적인 것에서 그렇게 크게
변별력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.

00:08:00.320 --> 00:08:05.703
거기에 계속 같은 말씀을
드리지만 학점 조금 올리겠다,

00:08:05.859 --> 00:08:11.288
영어 점수 조금 올리겠다고
한 달, 두 달 이렇게 시간을 쏟느니

00:08:11.388 --> 00:08:13.702
여러분 인적성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

00:08:13.818 --> 00:08:17.563
다른 여러 가지 행동을
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
00:08:17.730 --> 00:08:19.571
-저희 같은 경우에도
예를 들어 저는 책을 쓴 게

00:08:19.706 --> 00:08:22.585
엄청난 필살기로
작용해서 취업을 했고.

00:08:22.744 --> 00:08:23.214
-그렇죠.

00:08:23.368 --> 00:08:25.241
-존슨 씨 같은 경우에는
어쨌든 학교가 좋아서

00:08:25.388 --> 00:08:26.792
학교가 필살기로
작용해서 취업을 했고.

00:08:26.894 --> 00:08:27.693

-저는 결혼.

00:08:27.793 --> 00:08:28.569

-결혼도 있고.

00:08:28.705 --> 00:08:30.623

-결혼도 일종의 제 취업을 위한 스펙이었습니다.

00:08:30.795 --> 00:08:34.674

-최근 취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취업학개론이라는 방송을 하면서

00:08:34.841 --> 00:08:38.981

그거를 스펙으로 적어 내서 학교나 영어 성적, 자격증은 없지만

00:08:39.137 --> 00:08:40.301

그런 거로 취업을 했잖아요.

00:08:40.473 --> 00:08:41.739

-그 덕은 다 철수 씨가 봤죠.

00:08:41.914 --> 00:08:44.584

-그렇죠,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스펙 같아도

00:08:44.684 --> 00:08:47.076

기업 입장에서 정말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스펙이 있으니까.

00:08:47.209 --> 00:08:48.883

-그래, 여러분이 풀어내기 나름입니다.

00:08:49.035 --> 00:08:50.893

-너무 주눅 들지 말고 정말 힘내세요.

00:08:51.044 --> 00:08:53.357

-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취준생 여러분.

00:08:53.457 --> 00:08:54.762

(함께) 건승하십시오.